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울타리소식



황전요양원 대나무 숲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

- ♥ 후원금 : ① 일반 후원 및 성금 - 시설운영비 지원
② 결연 후원 - 어르신 용돈지원
 - ♥ 후원물품 : **일반생활용품**(세탁·주방세제, 쓰레기종량제봉투, 종이기저귀, 수건, 휴지 등)
가전제품(선풍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부식류(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식용유 등)
간식류(과일, 떡, 과자, 빵, 음료수 등)
각종 의약품(소화제, 파스, 살충제 등)
나들이 차량제공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수리 등
-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온라인 계좌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104-01-004861-0	(사복) 황전요양원
지로번호	7653777	(사복) 황전
결연후원	지정자 문의 계좌 설정	

오시는 길



- ♥ 승용차 동래방면 만덕제1터널 입구 전 우회전 → 지하도 통과 → 우회전 → 산길 100m → 본원
- 구포방면 만덕제1터널 통과 후 우회전 → 산길 100m → 본원
- ♥ 대중교통 버스 46번 (만덕터널 입구 하차) → 산길 도보 100m → 본원
- 지하철 동래역 4번출구 → 3번 금정마을버스 종점 하차 → 산길 도보 100m → 본원

홈페이지/ www.hjnursing.kr

이메일/ hjnurhome@hanmail.net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황전요양원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만덕로 172(은천동)

황전요양원 TEL.(051)554-6661 FAX.(051)554-7430

치매상담센터 TEL.(051)555-4827

- 마음을 여는 시 -

[고마운 여름] 중에서

- 이 해인 -

푸른 잎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는 나무들이
새삼 고마워서
“나무야, 나무야”
친구를 부르듯이
정답게 불러 봅니다.

나의 맘을 식혀주는
한 줄기 바람이
새삼 고마워서
“바람아, 바람아”
노래를 부르듯이
정답게 불러 봅니다.

장마 뒤에
뽕뽕 내리쬐는 햇별이
새삼 고마워서
“해님, 해님”
하느님을 부르듯이
반갑게 불러 봅니다.



차 례

여는글 2

마음을 여는 시

황천요양원 어르신 동정 3

어르신 소식

보호자의 글 4-5

나누며함께하는 세상 6-7

여가생활 엿보기

프로그램 활동 8-9

각종행사 이모저모

사랑의 손길 하나, 둘 10-11

04월 - 06월 물품 및 후원금 내역

직원의 글 12-13

여름철 노인 보양식 14

알려드립니다 15-16

입소절차, 후원방법 등 각종 안내

“노인이 따로 있나, 세월이 노인 된다”

황천요양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과 자원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황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정기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

- ◎ **목욕봉사** : 동래구여성자원봉사회, 시민대학3기, 열린봉사회
- ◎ **이용봉사** : 유병재님
- ◎ **미용봉사** : 장향숙님, 이정주님
- ◎ **프로그램봉사** : 경현시니어 클럽(공연), 어린이집공연
- ◎ **노력봉사** : 시민대학3기, 사나래 봉사단, 메리츠 화재
- ◎ **청소 및 근로 봉사** : 한국공항공사, 국민은행 다사랑 봉사단
- ◎ **기타 봉사** : 온천성당, 임순양 목사님



새 가족을 모십니다

◆ 입소조건

- ◎ 치매, 중풍,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증서 1·2·3·4·5등급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입소가 가능함.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일반 노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일반 입소자는 보험수가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됨.(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임)

◆ 입소절차

- ◎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지참
- ◎ 본원과 상담 [☎ : 051)554-6661, FAX : 051)554-7430]

여름철 노인 보양식

1. 삼계탕

삼계탕의 효능은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다.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흘리게 되고 몸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삼계탕 안에 들어가는 마늘, 인삼으로 온기를 보충해 준다.



2. 추어탕

추어탕은 기력회복에 좋으며 체력보강 및 증진에도 효과가 높다고 한다. 미꾸라지를 갈아서 만든 여름철 보양식으로 비타민A, 비타민D,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건강음식으로 꼽히기도 한다. 몸이 약하신 노인 분들께는 아미노산, 칼슘,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 좋은 영양음식이기도 하다.

3. 장어구이

장어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A는 시력보호, 암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E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용을 한다. 또한 장어는 고단백질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병(고혈압, 동맥경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전복죽

전복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고급수산물로 취급되었으며 임산부, 비만증, 간경화에도 좋은 식품으로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허약체질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시신경의 피로에 뛰어난 효능으로 시력회복과 간장의 해독작용을 촉진한다.

5. 오리백숙

오리고기는 모든 육류 중 특이한 알칼리성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도 체내의 지방과다 축적에 의해 유발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염려없이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산성화를 막아주는 스테이너 식품으로 여름철 더위에 좋은 보양식이다.

황전요양원 어르신 동정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 입소어르신

04월 : 박복순, 김임이 어르신

05월 : 김동진, 김인선, 정지상 어르신

06월 : 이안순, 안호연 어르신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 합니다.

04월 : 김태연, 윤정자, 정맹년, 김윤출, 곽동연, 김하성, 김민수어르신

05월 : 김귀봉, 김복선, 김동현, 박복순, 윤한호, 김양삼, 유봉선, 정양례 어르신

06월 : 허만선, 김임이, 조철호 어르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4월 : 故 김 숙 어르신

06월 : 故 엄정훈 어르신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



엄마는 아주 깔끔하고 정이 많으셔서 어딜 가나 형님, 동생하며 따르는 분도 많았고, 음식솜씨 또한 타고나서 아파트 김장철이 되면, 이집 저집 다니시며 김장 간을 봐주며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다.

항상 우릴 보면 밥은 먹고 다니냐며 밥상 차리기에 바빴던 우리 엄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를 반겨주시던 엄마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늘 이 맘 때면 엄마가 담아 주던 열무김치와 보글보글 끓여주시던 우거지된장국이 눈물 나게 그립다.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엄마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실 거라는 생각을 한번쯤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엄마가 아니 내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때문에 그 충격은 그대로 우리가슴에 상처가 되었고, 길게만 느껴지던 작년 여름의 시간들을 많은 눈물 속에 가슴 아파하며 보냈다. 설상가상이라고 항상 골치 덩어리 허리 병까지 도져서, 꼼짝달싹 없이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들 모두 일을 하고 있었기에 선뜻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며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정말 수많은 곳의 요양원을 알아보고 결정한 곳이 바로 이 곳 “황전 요양원”이다.

이곳은 주변에 산과 나무들이 많아서 공기가 아주 맑고 쾌적하다. 봄이 되면 산이 벚꽃으로 둘러싸여 창 가장자리인 엄마침대에서 바라봐도 장관을 이룬다.

날 좋은날 산책을 나가면 주변 곳곳의 새소리에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히게 아파올 정도로 고맙게 느껴진다. 기력이 약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밥 한 수저 더 드시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반성하게 해준다.



양예선 영양보호사

국장님께서 속옷을 갈아입히시는 데 저는 부끄럽고, 불쌍하고, 만감이 교차해서 가슴이 미어졌지요. 속옷이 오염으로 딱칠이 되어 천이 안보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엄마를 모시러 갈 때까지 망설이고 고민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를 나 혼자 책임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그런 모습으로 본 순간 그런 고민은 다 사라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왔을 때
엄마의 그 모습에 직원들도 울고 ... 저도 울고...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고요?

그때 내가 왜 망설였을까? 하고 후회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마도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황전요양원이 딸집인줄 아시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항상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 이하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조리사 선생님들까지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기가 되어버린 91살 우리엄마



친정엄마를 황전요양원으로 모신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두어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엄마, 슬하에 딸 여섯에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건만 나를 포함한 자식들은

엄마가 건강하실 때는 잘도 드나들다가 정작 자식들의 부양이 필요해지자 서로 눈치 보기 바빴죠. 몇 개월 만에 엄마를 뵈러 갔을 때 이웃의 아주머니께서 엄마 상태의 심각함을 말해주셨지요.

“그 집 할매 딸들은 참 무심하데이... 우째 그토록 자주 안 오노.

할매가 며칠이나 굶었는지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내가 죽을 끓여 드렸다.

자식이 많으면 뭐하노... 끝끝...”

자식이 일곱 명이나 있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핑계로 ... 엄마가 밥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며칠씩이나 굶고 계셨다는 것을 일곱 명의 자식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전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을 한 인연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상담을 통해 등급을 받고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모시러 갔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계셨고 상한 음식을 분간하지 못하고 드셔서 장염으로 인한 설사로 옷, 이불 등 방안 전체에 변이 묻어 있었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며 넘어지셨는지 머리에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김선자어르신 보호자님

엄마가 누워계실 때도 마찬가지이다. 불편함이 없는지 자주 물어봐 주시고, 행여나 적적해 하실까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몇 달을 누워 계시던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산책도 다니시고, 조금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여기 황전요양원은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선생님들과 언제나 밝게 웃으시는 직원 분들, 묵묵히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 몸 아끼지 않고 고생을 해주셔서 더욱 더 안심되는 곳이다.

요양원하면 어둡고 소외된 듯 한 선입견 때문에 선뜻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괜한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곳도 바로 “황전 요양원”이다.

얼마 전 택시를 타고 요양원에 가던 중 기사님께 목적지가 요양원이라고 했더니, 기사님 어머님께서도 요양원에 계신데 옮길 곳이 마땅찮아서 알아보고 있다며 이것저것 물어 보셨다. 정말 맘에 드는 요양원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푸념 아닌 푸념으로 궁금해 하시길래 자신 있게 말씀드렸다.

“직원 분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부모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내 부모님처럼 한분한분께 정성을 다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곳...”

수많은 곳의 요양원을 알아보며 선택한 곳이 바로 이 곳이며, 그 결정에 후회 없는 곳 또한 황전 요양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족 모두의 고마운 마음도 요양원의 모든 직원 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누며 함께하는 세상



□ 문화공연

kb 국민은행 다사랑 봉사단과 동래 문화원 행복나눔 음악회 회원님들이 멋진 공연과 따스한 손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집 공연

예쁜 천사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안마도 해드리자 어르신들도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볼도 비벼 주시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 아름다운 동행 외식나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주최하는 외식나들이에 다녀왔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경로잔치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사랑의 손길 - 두울



2015년 04월 01일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접수된 후원금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황전요양원 후원금 내역 (2015.04.01 ~ 2015.06.30.)

(단위 : 원)

곽동연	100,000	오해영	300,000
국민은행연산동역점	300,000	육화진	300,000
김경석	100,000	윤대성	29,700
김명우	50,000	이지스코리아(주)	74,950
김홍열	200,000	정상훈	700,000
만석식육점(김성호)	200,000	정이자	90,000
박기현	60,000	정회옥	204,000
박정열	300,000	차규환	100,000
변춘옥	40,000	최봉현	100,000
보건온누리약국	150,000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18,2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00	홍영희	100,000
오인식	60,000	황석근	500,000
합 계		4,576,850	

※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로 입금하신 분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2015. 04. 06 오해영님 계란7판
- 2015. 04. 06 차옥자님 콩나물2통
- 2015. 04. 07 중식분과위원회 자장면100인분 외 4품목
- 2015. 04. 07 김현아님 옥육자1EA 외 1품목
- 2015. 04. 08 대추밭임한의원 감초1봉 외 1품목
- 2015. 04. 10 정맹년ct보호자님 바나나1BOX
- 2015. 04. 11 국민은행다사랑봉사단 딸기16kg 사탕5봉, 화장지10개
- 2015. 04. 11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 10봉
- 2015. 04. 12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 15봉
- 2015. 04. 18 유봉선ct보호자님 바나나1BOX
- 2015. 04. 20 씨트론제과 빵20봉
- 2015. 04. 20 아름다운동행 밥, 국150인분
- 2015. 04. 23 보건은누리약국 판부론정85통
- 2015. 04. 23 백선희님 해물찜100인분, 수박2통
- 2015. 04. 26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 10봉
- 2015. 04. 26 전옥경님 백설기3되, 두유48EA
- 2015. 04. 28 삼성증권 사랑나눔美 사프란(2입)8봉 외 2품목
- 2015. 04. 29 동래문화원 단팻빵75봉
- 2015. 04. 30 삼성증권(주) 잡곡(4kg)3BOX 외 2품목
- 2015. 04. 30 차옥자님 콩나물2통
- 2015. 05. 01 씨트론제과 케이크2통, 빵 15봉
- 2015. 05. 01 메가마트 짜장라면4봉(사은품)
- 2015. 05. 02 최숙현님 선물set11set, 치약30EA
- 2015. 05. 04 풍미락 소잡빠60kg
- 2015. 05. 04 김혜숙님 백설기6되
- 2015. 05. 05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2봉
- 2015. 05. 05 박요연ct보호자님 참외20kg
- 2015. 05. 05 김임이ct보호자님 토마토5kg
- 2015. 05. 06 롯데플라워 카네이션100EA
- 2015. 05. 06 광동연ct보호자님 카네이션66EA
- 2015. 05. 07 생활선원 모듬간식70EA
- 2015. 05. 07 럭키약국 스포펜타스1통, 멕시갑3통 알바콤60통
- 2015. 05. 08 조옥자님 숙설기6되
- 2015. 05. 10 고숙자님 설량(15kg)1포
- 2015. 05. 12 경친회 중식100인분 외 4품목
- 2015. 05. 15 씨트론제과 빵11봉
- 2015. 05. 16 씨트론제과 빵20봉
- 2015. 05. 18 흥란님 수박2통
- 2015. 05. 21 박복순님 상추4kg, 근대2kg
- 2015. 05. 23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25봉
- 2015. 05. 23 씨제이프레시웨이 바나나1BOX
- 2015. 05. 26 씨제이프레시웨이 수박2통
- 2015. 05. 26 패밀리식품 수박4통, 바나나1BOX



사랑의 손길 - 하나

2015년 04월 01일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접수된 후원물품 내역입니다.
사랑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5. 05. 27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 15봉
- 2015. 05. 28 씨트론제과 빵20봉
- 2015. 05. 28 삼성증권(주) 브로콜리2BOX 외 3품목
- 2015. 05. 29 김동국님 김밥, 유부초밥100인분 수박2통
- 2015. 05. 29 삼성증권 사랑나눔美 종량제봉투155장
- 2015. 05. 29 동래구자원봉사센터 향기주머니, 모기퇴치제 46set
- 2015. 05. 30 정양례ct보호자님 숙절편2되 요구르트60EA
- 2015. 05. 30 차옥자님 콩나물3되
- 2015. 05. 31 씨트론제과 케이크3통, 빵8봉
- 2015. 06. 01 유봉선님 떡3되, 음료수(2입)3EA
- 2015. 06. 02 박복순님 상추3kg
- 2015. 06. 03 푸드엔 고구마녹말1봉 외 3품목
- 2015. 06. 05 씨트론제과 케이크3통, 빵20봉
- 2015. 06. 06 아름다운동행 빵90봉
- 2015. 06. 08 메가마트 포인트(3,000원)4장
- 2015. 06. 09 정지상ct보호자님 수박2통 카스타드(2유음)5봉
- 2015. 06. 11 씨트론제과 케이크3통, 빵 15봉
- 2015. 06. 12 씨트론제과 케이크2통, 빵20봉
- 2015. 06. 16 씨트론제과 케이크2통, 빵4봉
- 2015. 06. 16 웅천농원 화분360EA
- 2015. 06. 19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 마스크2통, 손소독제1EA
- 2015. 06. 23 씨트론제과 케이크1통, 빵20봉
- 2015. 06. 24 아모레퍼시픽 AP명품단장1S호 10BOX 외 12품목
- 2015. 06. 27 정지상ct보호자님 백설기3되
- 2015. 06. 27 광동연ct보호자님 기저귀1BOX
- 2015. 06. 28 김재규님 올리브오일6병 외 3품목
- 2015. 06. 30 삼성증권 사랑나눔美 휴지(30롤)14통



나누며 함께하는 세상



□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도 전달하였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5월 가정의 달, 경로잔치
대성 선린회, 경친회 주최로 다채로운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들 가슴엔 빨간 카네이션 꽃이, 주름진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프로그램 활동



□ 황전행복나들이

김해 연지공원으로 행복나들이를 다녀 왔습니다. 레크리에이션도 즐기고 노래자랑으로 선물도 받고...야외에서 즐기는 식사는 정말 꿀맛입니다.



□ 황전요양원의 자랑 “안아 주세요” 프로그램입니다. 스킨십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에고 에고 내 새끼~ 하며 꼭 안아 주시고 볼에 입맞춤도 하신답니다.

□ happy birthday!!!

푸짐한 잔치 상에 어깨춤이 덩실덩실~ 개별 생신축하 “좋은날 기쁜날” 프로그램과 월 1회 합동 생신잔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활동



□ 드라이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 기타 프로그램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나도 요리사, 하하신바람교실,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멋진 노래 솜씨도 뽐낼 수 있습니다.